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9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4 호

## 종조멸도절 종령 법어

### 창종 정신 새겨 재도약 기회로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이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4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서는 중생구제와 구국도생의 대비원을 세우시고 한국 밀교 중흥의 발원으로 정통밀교인 불교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창종 이후 종조께서는 교상과 사상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시면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시어 오늘날 불교총지중은 한국밀교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서는 교상과 사상의 괴리를 바로잡고 보다 완벽한 정통밀교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교상과 사상을 확립하여, 새로운 수행 체계와 종단 체제의 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수행과 자기계발로 성

장할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생산기술과 신제품의 개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500년이 넘는 찬란한 불교문화가 요즘 쇠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화와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종단 창종을 이끌어낸 것처럼 오늘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종단 화합과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역사와 오늘의 우리는 원정 대성사님의 뜻에 인연한 것이며, 미래는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더욱 정진해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승단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하며,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과 종단 발전의 서광이 곳곳에 발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나니반베흠  
옴나니반베흠  
옴나니반베흠

총기 51년 9월 8일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 아미타불 극락세계에서 상품상생 하옵소서!

### 효강 대종사 49재 천도불공 본산 총지사에서 엄수



불교총지중 제9대부터 11대 종령과 5대와 9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7월 1일 세수 96세, 법납 33세로 원적에 든 효강 대종사 49재 천도불공법회가 8월 18일 서울 본산 총사에서 종단 상장례법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다. 기사 2면

## 2022년 추계 학술대회 총지중 본산에서

### 한국밀교학회 '불교의 수행' 주제로 10월 27일 개최



통리원장 우인정사

불교총지중과 진각종 양대 밀교종단이 공동으로 창립한 한국밀교학회(학회장: 효명 정사)의 2022년 추계 학술대회가 '불교의 수행'이라는 주제로 종단 주관으로 열린다.

오는 10월 27일 불교총지중 본산(역삼동)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6월 진각종이 주관한 춘계 학술대회에 이어 지난해 창립 이후 두 번째다. 대회는 오전 10시

밀교학회 부회장 특경 정사 집공의 불공에 이어 학회장 효명 정사(진각종 교육원장)의 개회와 통리원장 우인 정사의 인사말로 서막을 연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는 총 7주제로 한국불교계 각 분야에 내로라하는 학자들의 발표로 진행된다. 총 진행은 학회 총무이사 김치은 교수가 맡았으며, 종단에서는 화령 정사(철학 박사, 법천사 주교)가 '밀교 아자

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 주제와 관련 진각종 수각 정사(진각종 보정심인당 주교)가 논평자로 참여한다.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천태불교에서의 수행(지혜경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초기불교에서의 수행(이필원 동국대학교 교수) △유식불교에서의 수행(박재용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화엄수행과 보살도의 실천(박서연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조사선의 무수무증(無修無證)과 당하즉시(當下即是)(김진무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범자관상에 관한 연구(강대현 위덕대학교 연구교수)

## 종/조/법/어

신의로써 벗을 사귀고 어진 사람을 질투하지 말며, 강한 자를 겁없이 제어하고 약한 자에게 자비하여 침해하지 말라.

## 지면안내

- 4면 특집/연보로 보는 원정 대성사의 삶
- 5면 효강 대종사 추선 특집/다시 듣는 사자후
- 7면 창종 50주년 특집/총지중의 역사
- 9면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사

## 제42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일시 \_ 총기 5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1시

장소 \_ 총지사 원정기념관(서울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전국 각 사원 서원당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1면에서 이어짐

“오로지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기필코 왕생극락하시고 구경성불하시기를 유족과 함께 동참대중 일동은 지심으로 회향 서원합니다.”

효강 대종사 49재 천도불공법회가 8월 18일 서울 본산 총지사에서 종단 상장례법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다.

총무부장 록경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법회는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해 전국 스승과 유가족, 교도들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엄수되었으며, 동참대중의 원력으로 효강 대종사 영식의 극락왕생과 구경성불을 지성 발원했다.

이날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오늘 49재 천도불공에 앞서 초재부터 6재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해주시는 개천사 법등 정사님과 인덕심 전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열었다.

아울러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먼 길마다 않고 동참해주시는 사부대중의 인연공

덕으로 대종사님께서 극락세계 왕생성불하시기를 다시 한 번 발원한다.”고 전했다.

가족 대표로 딸 안정애 씨는 직접 작성한 ‘극락정도에 머무실 아버님을 기리며’라는 제하의 추도사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불공을 통해 지혜를 얻고 길을 물으라고 말씀하셨다.”며 “슬하의 자손들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살아가실 때보다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얻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대종사는 불교총지종 제9대부터 11대 종령과 5대와 9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7월 1일 세수 96세, 법납 33세로 원적에 들었다.

한편 대종사의 추선불사는 종단 상장례법에 따라 3주기까지 종단에서 주관하여 본산에서 봉행된다.

박재원 기자

# 한국밀교학회,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 발간 통리원장 우인 정사, “밀교의 지혜로 깊고 넓은 실천의 길로”



한국 정통밀교의 양대 종단인 총지종과 진각종이 뜻을 모아 창립한 한국밀교학회(학회장 효명 정사)가 학술지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에는 밀교 중요 경전 중심의 특집논문 4편과 한중일 및 인도의 불교 특성과 세계관을 다룬 일반논문 6편이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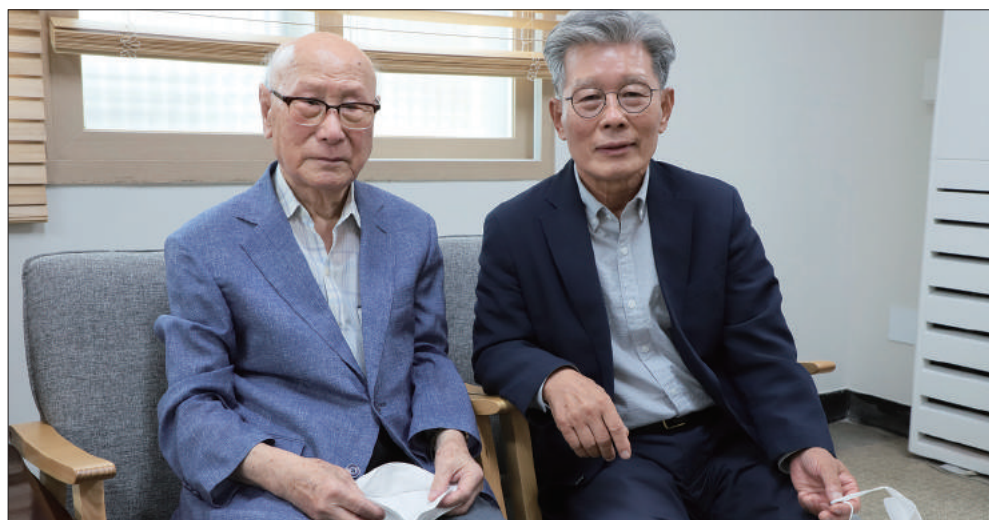
특집 논문으로는 △ ‘공양차제법소(供養次第法疏)’의 현신성도(現身成道) 의례와 고찰(정성준) △ 금강경경계 경전의 전래와 유통(김치은) △ ‘대승장엄보왕경’의 사상연구-‘법화경’ ‘화엄경’ 인도신화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이병욱) △ ‘보리심론’의 전래와 유통-저자 문제를 중심으로(성제 정사)가 실렸다.

일반 논문은 △ 분황(芬皇) 원효(元曉)의 기신사상(起信思想)-일심(一心)과 본각(本覺)의 접점과 통로(고영섭) △ 간화선의 중도에 대한 고찰-대혜종고 간화선을 중심으로(오용석) △ 중국 근대의 진화론적 시계(視界)에서 본 대승현생적(大乘現生的) 세

계와 인간정토(人間淨土)의 경계(김연재) △ 의례율조 명칭 ‘쇼묘’와 일본불교의 특성(윤소희) △ ‘남양선생시집’ 간행과 ‘고려대장경’ 조성사업(최연주) △ 힌두탄트리즘의 세계관 고찰-시바파 불이론의 36원리를 중심으로(심준보)가 수록되었다.

학회 자문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학술지 발간 축하사에서 “불교학밀교학연구의 창간호는 한국 정통밀교의 양대 종단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불교학·밀교학 발전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 나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학회지를 통해 불교계의 지성들이 밀교의 지혜를 모아 더욱 깊고 넓은 실천의 길을 열어가자.”고 발원했다. 김상미 기자

## 시절인연 20여 년 만에 감격의 재회 총지사 설계한 박수현 건축사 본산 방문



사진은 종단을 방문한 박수현 건축사(왼)와 기로스승 지성 정사

1978년 총지사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박수현 건축사(92세)가 효강 대종사 49재를 맞아 총지사를 방문했다. 이로써 건축사와 스승님들 간의 만남이 20여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박 건축사는 “인연 스승님들이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수소문하던 끝에 마침 효강 스승님 49재가 본산에 있다고

해서 오게됐다.”며 짝막한 인사를 대신했다.

지성 정사는 “건축사님은 총지사 건축 당시 종단 형편이 어려워 협회비만 받고 불사에 참여하셨다.”고 회고하며 “이 인연으로 이후 정각사, 삼밀사, 성화사 등을 대수선 했고, 이후 통리원 본산 설계도 맡아 주셨다.”고 소개했다.

## 종단협 ‘불교기후환경위원회(가칭)’ 설립

총무부장 록경 정사, 총지사 최영아 교도 위원에 위촉



록경 정사

최영아 교도

불교총지종을 비롯해 30개 불교 종단이 참여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가 지구촌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으로 ‘불교기후환경위원회

(가칭)’를 설립하였다.

불교기후환경위원회는 종단협 소속 회원 종단에서 출·재가불자 각 1명씩 총 2명의 대표를 추천받아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록경 정사와 총지사 신정희 회장 최영아 교도가 위촉됐다.

종단협은 ‘마음정정 지구정정 3년 실천·10년 실천’ 중장기 계획을 분야별 슬로건과 캠페인 주제의 4가지 운동으로 발표하며 위원회 구성에 힘을 실었다. 무소유 공유장터, 쓰레기 제로,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속지족 운동’, 기후환경캠페인 개최 및 매

월 2회 쓰레기 줍는 ‘수취작주 운동’, 나무심기와 새먹이주기 방생의 ‘동물권보호 운동’, 빈그릇과 채식, 쓰레기 제로, 3년간 108개 햇빛발전소 세우기를 목표로 한 ‘자립자득 운동’을 활성화하여 불자들의 실천을 이끌 예정이다.

불교기후환경위원회는 중장기 계획을 기초로 불교인 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불자활동가 육성 및 교육을 이어간다.

한편 종단협은 지난 7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립 결의를 뒷받침할 실천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실천선언문에는 부처님 제자로서 보살행을 행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공동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모든 사회적인 실천과 공동행을 함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 내마음의 등불

운천사 정원심 전수

## 교법(教法)의 기쁨

어떠한 선물보다도 교법(教法)의 선물은 제일이고, 어떠한 맛보다도 교법의 맛이 제일이다. 교법의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을 능가하고, 애착의 소멸은 모든 슬픔을 능가한다. 법에서 살고, 법을 기뻐하고, 법에서 명상하고, 법을 따르면 그는 옳은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불교총전 p149, 『법구경, 法句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운천사 정원심 전수님은 정인화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총지중, 수능시험원만 100일 정진 입재

## 불공 희망 동참자 전국 사원 수시 접수가 가능

총지중 전국 사원에서 2023학년도 수능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일제히 불공 입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시험 전날인 11월 1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수능시험원만과 대학진학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

또 시험 당일인 11월 17일에는 시험이 시작되는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 종료시까지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과 교도들의 원력으로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함께 서원하는 자리로 간절한 불공을 올릴 예정이다.

정각사 주교 범일 정사는 “수능시험 원만 불공은 수험생들의 지혜가 밝아지고,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하기를 간절히 서원하는 불사다.”고 전제하고, “100일 불공에 입

재하지 못한 교도나 가족들은 49일을 앞두고 더욱 발심하여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을 마치도록 응맹정진하시기를 바란다.”고 불공의 의미를 설명했다.

2023학년도 수능능력시험원만과 대학진학합격원만 불공 희망자는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불공에 동참 할 수 있다.

문의= 본지 11면 전국 사원 일람 참조

# 사관(史觀)

지혜의 눈

## 조선 양반의 증가로 봉건적 신분질서가 해체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으로 넓혀 바라보아야

정치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협소한 역사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신분제 사회에서 정치는 10%도 안 되는 소수의 상층 지배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룰 뿐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지배층 내에서도 중인과 같은 하층 지배층과 상민과 천민은 정치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를 정치사 위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당쟁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식민사관의 논리에 포섭되기 쉬운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에 경제와 사회분야는 피지배층의 생활이 담겨있어서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인류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은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사회도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도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단 신분적 특권을 타파하는 혁명적 과정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신분층이 증가하는 점진적 과정으로 봉건적 신분질서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 대구지방의 경우는 양반에 속하는 계층이 무려 70%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에 이르르면 불특정의 계층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저잣거리에서 사람들끼리 싸울 때 “이 양반이!”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권층은 소수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인구의 다수가 양반계층이라면 특권층이라는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전개되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1592년 임진전쟁이후 피폐해진 사회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해 조선 정부는 대대적인 수취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일반민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금은 공납이었습니다. 공납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국의 각 고을에 현물로 부과한 것인데 부과대상이 각 고을의 민호(民戶)였습니다. 이 경우 담세능력을

고려해서 각 호(戶)마다 경제적 부담의 차등을 두었지만 미미했고 따라서 공납의 경우도 신분적 차이가 작동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제정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액수를 거둬야 하고 이는 담세능력이 있는 부유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시행된 것이 대동법(大同法)으로 부과대상을 민호에서 토지로 바꾸었던 것이죠. 이는 혁명적 변화였는데 일단 현물에서 쌀로 세금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과대상이 민호(民戶)에서 토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집집마다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에서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없는 빈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토지가 많은 양반지주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동법을 오늘날 세제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부유세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할 부분은 대동법이라는 정책이 대지주인 양반관료들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관료층은 성리학이라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치 이념에 충실하였기에 자신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을 낡은 중세 봉건제의 통치이념으로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근대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시대 역사를 바라보면 조선왕조가 무능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식민사관의 논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민사관이란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을 오로지 내인론(內因論)에서만 찾으려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발전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감추려는 잘못된 사관(史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정치사의 좁은 영역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으로 넓혀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 학교법인 관음학사 203차 이사회 개최

## 2023학년도 교사 신규 채용 등 의결



학교법인 관음학사 203차 이사회가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2022학년도 학교회계 2차 추경안을 각각 심의하고 원안대로 496,030,000원을 승인했다.

또 2023학년도 동해중학교 화학과 교사 1명과 기술과 교사 1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의결했다.

채용에 대한 공지는 9월 말 동해중학교 홈페이지와 총지신문 지면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

## 선거 단독 후보, 원로회의서 인준 예정



진우 스님

제37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전(前)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당선 사실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85차 회의를 통해 총무원장 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결정하였다.

조계종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1인의 후보자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조문에 의거 진우 스님은 무투표 당선자가 되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78년 보현사에서 관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며 불연을 맺었다.

1999년 용흥사 주지로 부임하며 중무행정에 발을 들였고, 2012년 백양사 주지 소임 시에는 사찰 내용으로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며 안정화를 이끌었다. 2017년 종단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총무원 사서실장, 호법부장, 기획실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교육원장을 역임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은 9월 2일 원로회의를 열고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인준 절차를 최종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준이 무난히 통과되면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임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정지였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85차 회의를 통해 총무원장 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결정하였다.

제37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전(前)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당선 사실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85차 회의를 통해 총무원장 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결정하였다.

조계종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1인의 후보자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조문에 의거 진우 스님은 무투표 당선자가 되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78년 보현사에서 관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며 불연을 맺었다.

1999년 용흥사 주지로 부임하며 중무행정에 발을 들였고, 2012년 백양사 주지 소임 시에는 사찰 내용으로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며 안정화를 이끌었다. 2017년 종단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총무원 사서실장, 호법부장, 기획실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교육원장을 역임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은 9월 2일 원로회의를 열고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인준 절차를 최종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준이 무난히 통과되면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임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된다.

# 부산 정각사 추석 차례 불공 봉행

추석, 오곡백과 풍성한 한가위에 조상 은혜를 다하고자

부처님께 추선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복락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1년 9월 10일(토) 13시

장소 \_ 부산 정각사 2층 득락전



정각사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 051.552.7901 | 계좌번호: 094-000016-04-015(기업은행)



연보로 보는 원정 대성사의 삶

창종에서 멸도까지 정통밀교 선각자로 한 평생

원정 대성사 연보(年譜)

**1907년**  
1월 29일 경상남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 죽서竹西마을에서 부친 손기현과 모친 이근호 사이에서 사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1912년**  
한일합방이 되자 부친은 가족을 모두 이끌고 만주 서간도로 망명의 길을 떠나다.

**1919년**  
부친은 서간도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인 서로군정서 산하조직인 한교공회에서 외교원 신분으로 일하다가 1920년 체포되다.

**1922년**  
육고를 치른 부친은 가족과 함께 다시 고향 밀양으로 돌아간다.

**1924년**  
대성사는 애국지사 홍주일 등이 대구 남산동에 연 중등교육기관 교남학교 고등과에 진학하다.

**1927년**  
6월 17일 대성사 나이 21세에 강숙이(불명: 금강관)와 혼례를 치르다.

**1936년**  
경남 함양군의 학교비 위원회 서기로 취임하여, 함양공립농업실수학교 예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1940년**  
일제의 식민 정책에 항거하며 사직 후 가족들과 함께 하얼빈으로 이주하여, 하얼빈 지방법원 소속 대서 업무를 맡으며 송사에 지친 사람들을 돕다.

**1941년**  
자본을 댄 인척과 정미소를 운영하며, 도정조합의 이사장에서 주하현 미국배급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다.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국. 일제치하 공출이나 징용 동원과 거리가 먼 인도적 지원의 적십자사 경남위원회의 군 서기로 근무하다.

**1946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밀양공립농장중학교의 행정관에 임명돼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아들 손순표가 의용군으로 징집되다. 대성사는 이 땅에서 전쟁으로 고통 받고 희생된 모든 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다.

**1952년**  
대성사가 기도를 시작한 49일째 되던 날, 아들이 살아 돌아오다.

**1953년**  
회당 대종사와의 첫 만남을 계기로 발심하여 밀양 심인당에서 수행을 시작하다.

**1955년**

시취試取 스승, 정사보正師補를 거쳐서 대성사는 정사로 승진하다. 당시 법호는 시당施堂으로 시당 정사로 불리다.

**1956년**  
회당 대종사가 주석하던 서울왕십리 심인당의 스승으로 봉직, 진각종 초대 사감이 되다. 사감은 후일 감사기관 '사감원查監院'으로 확대된다.

**1957년**  
'심인불교 금강회 해인행심印佛敎 金剛會 海印行' 출판사 설립, 밀교 경전을 직접 우리말로 옮겨 간행 업무를 시작하다. 정사로 승진 2년 만에 선교교로 추대되다.

**1958년**  
경전의 정수를 모아 '총지법장'을 간행하다. 또 '응화성전'을 내다.

**1964년**  
종단 최고위직 총인總印으로 선출되다.

**1971년**  
진각종의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100일 불공에 들어가다. 백 일째 되는 밤, 원정 대성사는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몽수를 받다.

**1972년**  
6월 28일 마지막 남은 명예직인 진각종 기로원장 직을 내려놓고 물러서다. 서울 상봉동 지금의 정심사에서 수행을 하며 집거에 들어가다.

**1975년**

정·공포하고 전수를 시작하다.

3월 28일 새해 불공으로 총본산 건설을 서원하고 역삼동 현 본산 대지를 매입하다.

4월 23일 한국 현대밀교 사상 최초로 삼매야계단三昧耶戒壇과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열어 전법관정수계를 하다.

11월 4일 교도들과 전국 스승들이 모여 본산 건물 상량식을 거행하다.

12월 14일 '오대서원'과 '회향서원' 등 찬불가를 작사하여 불공과 의식에 도입하다.

12월 15일 모든 경전을 통불교적으로 직접 편찬하여 '불교총정'을 발간하다.

**1977년**  
5월 22일 소의경전 '불설대승장엄보왕경전' 4권과 '대승이 취유바라밀다경' 전10권의 한글 번역을 완성하다.

5월 25일 소의경전 '밀교장경'을 직접 번역하여 간행하다.

12월 27일 총본산 마당에 성불탑을 세우고, 총지사 2층 서원당 불단을 개설하다.

**1979년**  
4월 26일 총지종 제2대 종령으로 추대되다.

**1980년**  
7월 18일 중정 전반을 목정 정사에게 맡기고 제자들에게 밀법 홍포의 대원을 부촉하다.

**1980년**  
9월 8일 세상의 인연 74년을 끝으로 열반적정의 세계로 들다.

육신의 소멸은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칠순이 넘는 노령의 육체는 쇠약을 피할 수 없었으니, 법계의 불사는 남아 있어도 대성사는 세상의 인연이 다함을 느끼고 있었다.

육신은 물질이니 소멸의 인과를 따라가나 마음은 법신과 함께하여 법계에 그 원을 새겨 영겁을 거듭해 현전하는 법이라고 주변에 일렀다.

당시 스승들은 대성사로부터 더 많은 법을 전해 받고자 경을 보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와 묻곤 했다. 세세히 설명을 했으나 때가 됐음을 알아 안타까운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건 이런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자네는 아직까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이를 어찌할 터인가....."

대성사의 몸은 쇠하여가도 눈빛은 빛을 잃지 않았다. 병고의 고통 없이 시절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곡기를 물려 세간인연을 정리하였다.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되어 주변사람이 들것에 대성사를 들어 옮기자 이런 말로 안타까움을 대신했다.

"이 육신으로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나, 이제 이렇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때가 왔구나. 마음은 그대로이나 몸은 새털처럼 가볍게 됐다."

아쉬움은 남고 안타까움에 가슴 시린 날이었다. 인연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무상하나 가르침은 그치지 않고 천체를 넘어 역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몸은 허깨비 같고 세월은 아지랑이 같아 잡을 수 없고 멸하는 슬픔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다.

1980년 9월 8일, 몇몇 스승과 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성사는 마지막 법문을 남겼다. "불공 잘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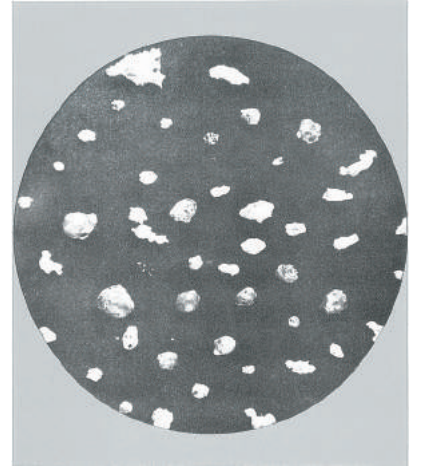
평소의 가르침대로 짧고 강한 말이다. 태양은 사라지지 않고 빛은 우주에 가득하니, 세연이 다하는 순간에도 삼밀의 공덕을 당부하였다. 처음과 끝이 같고 세상에 온 뜻과 법계로 돌아간 원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국 현대 밀교를 일으켜 법답게 위의를 갖추게 하고 정통밀교를 바로세운 인연은 세상의 인연 74년을 끝으로 빛으로 돌아갔다. 법계가 다하도록 공덕은 무량하고 복덕은 무진하니 후세의 제자들과 스승들과 교도들이 그 은덕을 이어 진리를 구현할 바이다.

대성사는 법계와 일체가 되어 지금도 가르침으로 머무시니 그 뜻을 받아 삼밀을 성취하고 세상을 위해 총지의 진리를 전할 것이다.

'불공 잘 하라'는 대성사의 가르침은 오늘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대성사일대기 '불공 잘해라' 중에서〉



▲ 원정 대성사 사리(舍利). 역삼동 원정기념관에 모셔져 있다.

◀ 1978년 춘계강공회 대성사 생전 모습(총지사 서원당)

'불공 잘해라' 독후감 우수작 ②

불심, 속세의 번뇌, 업, 음 나에게는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단어들이다. 사람들은 종교의 믿음의 시발점이 어떻게 될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러운 발걸음일 수도 있고 살면서 고통의 강에 휩쓸려 해마다 스스로의 영적 이끌림으로 찾았을 수도 있다.

우연찮게 접하게 된 '불공 잘해라'라는 책의 서두에서 고리타분한 불교이야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차츰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총지종이라는 밀교 전반에 영향을 준 과정을 보며 잠시 동안 나를 돌아보게 되고 성찰의 마음으로 책을 덮게 되었다.

무신 집안에서 종교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과정, 그의 삶 속에서 역경의 세월을 밀양, 하얼빈, 중국 선양 등을 옮겨가며 견문을 넓히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 서기로 일 할 당시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습에서도 나를 번갈아가며 떠올려보곤 했다.

나라면 어땠을까. 그가 현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종교가 다르다는 점에서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설득하고 전파하고 관철시키는 대부분의 이러한 행위는 거부감이 들었다. 나의 종교는 다 옳고, 그 외의 종교는 사이비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가. 깨달음은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찾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나의 종교 안에서 부정은 일어나고 눈살 찌푸리게 되는 숨겨진 민낯이 있기 마련이다. '불공 잘해라'를 통해 한 시대상부터 한 종교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보니 총지종이라는 생활 불교에 대해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모든 종교의 화두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의 사랑 그리고 고통, 인연의 관계도에서 성찰과 번뇌,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깨침에 도달하는 과정, 비로소 열반에 이르는 과정,

그래, 불공 잘 해보자!

나중훈

삶의 종착이 아닌 이어짐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이끄는 힘. 그게 종교의 힘이라 생각한다.

내가 평소애 곧잘 상상하고 누군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다시금 떠올려졌다. 사람의 고통은 '누구나 동일한 양의 물 한 컵이다'로 비유했을 때 그 물 한 컵을 다 채우게 되는 시점이 현생에서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이라 가정을 해보는 거다. 타인의 고통의 깊이와 정도를 어느 누군가가 점수 매기고 상중하를 논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지금의 고통의 면역의 정도에서 대성사의 시대에 아들 손순표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히게 된다. 하지만 그 시대상에 녹아들어 삶의 무게를 온전히 날 것으로 받아내어 면역이 형성 되었다면 고통의 민감도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누구나 고통의 물 한 컵의 동일 출발선이 있다는 거고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고통의 정도를 선부르게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들이 "나는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굶어도 됐고~ 뭐 뭐 때문에~ 라떼는~" 이러한 말로 상대방의 고통의 질량을 어설피 가능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범위의 상처이고 죄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원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지내왔고, 부모도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가정하자. 누구나 OO이는 좋겠다~ 하는 집안. 반면에 또 다른 집 아이는 유복하지도 않았고,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성장해왔다고 가정해보자. 누구나 평등하고 동일한 조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매섭다.

고통의 물 한 컵이라는 가정을 점목시켜보면 전자의 따뜻한 가정의

아이의 고통의 컵에 물을 많이 채우지 않고 고통의 면역이 낮은 삶으로 무탈하게 자라오다 어떠한 불행하다 할 수 있는 일을 겪게 될 때는 그 동안 천천히 채워졌던 고통의 물 컵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고, 후자의 가난한 집안의 아이는 처음에 많은 양의 물을 채웠지만, 고통에 대한 굳은살과 면역력으로 그 이후의 불행의 속도가 방파제를 넘듯이 완만하게 부딪혀 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 생각이지만 죽는 그 날까지 고난과 역경 없이 살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라 보지만 그것 또한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부르게 판단하기 어렵다. 어른에게 사기 맞은 3억이 큰 고난일까 어린 아이에게 있어 동네 개에게 빼앗긴 핫도그가 큰 고난일까

결국 우리의 삶의 고통의 정도는 스스로가 느끼는 정도이고 그 끝은 물 한 컵이 모두 채워졌을 때 현 생에서의 삶은 마무리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환경과 여건을 부러워하고 나의 환경을 타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 보다 이 또한 돌고 도는 것이고(내 생애 아니라면 내 자식의 생애 또는 나의 환생의 삶) 나의 고통의 물 한 컵을 채워 나간 다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담담하게 고난에 마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이 생각을 나의 교리로 믿고 싶어진다.

'불공 잘해라' 어떻게 하면 불공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은 온전치 않지만 한 가지 믿음의 결과로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어떤 특정 종교의 깨달음이 아닌 나로써의 삶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에 큰 획을 긋고 초를 켜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함을 느낀다. 곱씹으며 마지막 날까지 열독해보며 쓴 불공 잘해라.

그래, 불공 잘 해보자!



효강 대종사 추선 특집 다시 듣는 사자후

“삼평등(三平等) 실천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단”



효강 대종사

오늘 제78회 추계 강공회에 즈음하여 여러 스승님들께 ‘화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과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법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화합을 할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께서는 깨치고 보니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과 작용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심지어는 미물까지도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밀교에는 등류법신(等類法身)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이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부처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느냐에 대해 ‘삼평등(三平等)’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것은 ‘값어치가 같다’, ‘하나에 하나 더하면 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한 삼평등의 평등의 뜻이 ‘원융무애의 상태에서 전부가 하나다’는 가르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각기 다른 개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 불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평등이란 부처와 나와 모든 중생이 하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장애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서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온갖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간에 저 이슬람 계통에 중동 산유국들이 독재에 항거하는 온갖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전부 국민을 대립적으로 멸시하고, 자기 혼자만이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극단의 헛된 욕심에서 결국 공멸(共滅)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인 삼평등을 헤아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인데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나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항상 자기 위주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그 욕망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이요, 그

나. 이와 같은 문제는 진리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종단도 정말로 삼평등의 진리에 입각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삼평등의 실천을 통해 그야말로 화합하는 종단, 진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승단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종조법설집』 138쪽을 보면, “내가 화합 바라거든 진애심을 내지 말고 지혜 밝기 위해서는 우치사건 하지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애심을 일으키면 상대도 마찬가지로 진애심을 내게 됩니다. 종조님께서 “자기의 신용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말며 자기와의 화합을 위하여 다른 이에게 이간을 붙이지 말고 자기의 명예를 존중하거든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타가 위대한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요,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고 그 사람도 전부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반드시 나도 그런 허물이 있다, 부처님이 나에게 그런 법문을 보여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합은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의 반대는 이기주의입니다. 전자는 대인이요, 후자는 소인입니다. 전자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후자는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며 결국 영원히 지탄을 받습니다.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종단의 교전인 불교총전 664쪽 2번에 보면, ‘화합하는 여섯 가지 법’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교상미에 계시실 때의 일이다. 비구들 사이에 어떤 비구가 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시고,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여기 존중해야 할 여섯 가지 화합 하는 법이 있다. 꼭 기억하여 이법에 의해 화합해

쳐서 참회하고 다시 화합을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종조님께서도 열반을 하시면서 “화합하라, 화합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 하셨습니다. 불교는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종단이 정말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답게 법답게 생활해야만 우리의 수행도 완성될 수 있고 종단도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해 참회해야 합니다. 나날이 참회하고 또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고 닦아야 내세에 극락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단의 승직자가 갈고 닦으면 종단이 빛나고 교화가 흥성해집니다. 우리가 총지종의 역사를 잘못 기록하면 영원히 아픈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종단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큰 바라이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교도들이 스승을 볼 때 ‘참 부처님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구나’하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법하는 것보다 그것이 제일 큰 설법이 됩니다. 그 교화가 잘되는 겁니다. 물론 경의 말씀을 전하고, 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이 교도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못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분이 우리 정사, 전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로 스승님들 한분이 연을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참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단이 소중하다는 것을 평소에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화합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숭선수범하시고, 항상 종단을 걱정하면서 서로가 충고하고 잘못하면 서로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정성과 생명을 다해 생활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총기 40년(2011년) 10월 18일 추계 강공회>

부처님의 평등은 ‘원융무애의 상태에서 전부가 하나다’는 가르침 화합은 ‘희생정신’, 진리에 입각해 실천해야 우리의 수행도 완성

리한 정신으로 살면 모두가 아름다워집니다. 상대방이 절대 나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삼평등의 진리를 체득하고 실천해 나가면 성불의 경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삼평등은 우리 인간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도 모두 생명을 지니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도 자연과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자연은 나와 하나입니다. 나에게 조금 이롭다 해서 자연을 파괴하면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인간에게 해를 가져다줍니다. 오늘날 자연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연을 파괴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이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대립적으로 여기며 정복해서 만들어 낸 것입

결국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중을 이롭게 하면 그 사례로서 자기도 이로우며 완전하고 장원한 이익이고 화평과 은애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복락 무궁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참다운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정신으로 산다면 분명히 화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종조님께서 “대중을 해롭게 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면은 그 보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도 이익이 없고, 수원과 투쟁으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양화가 다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중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남의 단점 말하고, 남의 험담을 빼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걸 보면, 남 홍보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허물도 역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종조님께서 그때마다 회사하고, 정진하고, 참회

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는 같은 계율을 지키며, 둘째는 의견을 맞추고, 셋째는 받는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며, 넷째는 한 장소에 같이 모여살고, 다섯째는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며, 여섯째는 남의 뜻을 존중하라.”

부처님은 이튿날 교상미에 들어가 걸식을 마치고 다시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대중들이 화합하지 못할 때는 저마다의 행동을 더욱 삼가야 한다. 범법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참고 견디며, 자비한 마음으로 법담고 친절할 일이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한자리에서 화합해서 한 스승의 법을 배우면서 안락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사분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665쪽의 4번에 보면, ‘화합하지 못하는 남의 허물만 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허물을 뒤우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핀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0,000	₩ 40,000





중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1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중 창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하얼빈은 서양의 문물과 유럽의 패션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번영과 기회의 땅이었다. 조선인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1940년에는 조선인 중학교가 문을 열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봉천과 만주국 수도新京까지 급행열차가 달렸다. 경성과 하얼빈은 직통 전화가 개통돼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동아일보 등 국내 신문사도 하얼빈에 지국을 개설하여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 흐름을 타고 1940년대가 되자 조선 땅에 하얼빈 바람이 크게 불었다. 대중가요와 문학작품에 하얼빈이 무대로 자주 등장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는 하얼빈 기행 기사가 유행처럼 실렸다.

가수 김선영은 '할빈 여수(旅愁)'라는 노래를 발표해 인기를 끌었고, 진방남은 '꽃마차'에서 "노래하자 하르빈 춤추는 하르빈"을 노래했다. 이난영은 1942년 '하르빈 차방(哈爾濱 茶房)'이란 노래를 불러 크게 히트했다.

노랫말에서 하얼빈은 "푸른 꿈이 있는 희망의 땅"이라 그려지고 있다. 이런 가사말처럼 하얼빈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희망의 땅으로 다가왔다.

하얼빈으로 가는 길은 대성사가 어린 나이에 걸어서 떠났던 망명길과는 달랐다. 단출히 꾸민 짐과 함께 기차를 타고 경성역으로 가서 만주행 급행열차 '노조미'를 타고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두만강을 건너고, 만주국 수도新京에 도착할 수 있다. 그곳에서 다시 특급열차 '아세아'로 갈아타고 목적지인 하얼빈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걸어서 몇 달이 걸렸던 옛길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일본말로 희망을 뜻하는 '노조미'와 '아세아'는 만주철도의 자랑거리였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던 특급 고속철도가 한반도에서 출발해 국경 도시 하얼빈까



하얼빈에서 동료들과 \_맨 오른쪽 대성사(1944년)

# 기회와 번영의 땅 하얼빈에서 희망을 꿈꾸다



단파라디오\_대성사 유품(원정기념관 소장)

등법원과 지방법원이 함께 있어 법원 업무가 많았다. 사람들은 갖가지 송사에 시달려도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손해를 입는 일이 잦았다. 그들을 대신해서 법원 서류를 쓰거나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는 일은 나름 보람도 있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하얼빈의 중심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이다. 작은 어촌 마을이 만주철도 종착역이 되면서 도시로 된 터라 역은 하얼빈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도시 옆을 흐르는 송화강(송화강, 松花江)엔 최신식 기관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강가에는 붉은 돛을 단 흥선이 물고기며 생필품 등을 부지런히 싣고 하역하고 있었다. 시절의 사정을 제하고 본다면 한없이 평화롭고 활기차며 현대적인 도시가 하얼빈이었다.

법원은 신시가지인 난강(南崗)지구

에 있었다. 현재 하얼빈시 난강구 인민법원은 당시의 위치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법원은 회하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군 교육 관계 업무로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은 법원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이들은 행정관계나 법을 몰라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이들에게 대성사의 지식과 경험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전쟁의 기운은 북만주 하얼빈까지도 몰려들었다. 1941년 11월 12일자 부산일보에는 '반도의용대 하얼빈 도착. 만선일여(滿鮮一如)를 실현'이란 기사가 실렸는데, 근로정신대로 징발한 조선 청소년 150명이 하얼빈시에 도착했다는 내용이다. 조선 각지에서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력을 모아 전쟁에 필요한 강제 노동력을 수급하여 접적 지역인 러시아 국경지대까지 끌고 간 것이다.

대성사는 이곳에 근무하면서 유럽의 최신 유행뿐 아니라 혁명 후 소련의 사정 등 세계 정세를 민감하게 듣고 파악하게 된다. 이 시절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늘 단파라디오를 지니고 세계 각국의 방송을 듣는 습관이 생겼다. 이후 평생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으며 세상사 기운과 이치가 유행하는 사정에 귀를 기울여 지켜보았다.

법원 대서 업무를 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이듬해인 1941년 상당한 재력을 갖춘 대성사의 인척이 북만주에서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군수물자 징발에 식량은 우선순위였다. 곡식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인척은 만주 사정에 밝고 업무 처리가 꼼꼼하여 빈틈없으며 직원들을 잘 통솔하는 대성사에게 정미소를 함께 경영하자고 제의했다. 정미소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만주국의 허가를 얻어내는 일이었다. 행정처리와 관청 일에 밝은 대성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은 인척이 대기로 했다. 적합한 곳을 찾아 결정할 위치는 하얼빈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주하(珠河, 주허)란 곳이었다.

## 일본·유럽·소련의 사정 등 세계정세 이치에 밝아 지방법원 근무하며 어려운 사람들 송사를 돕기도

지 이어진 것이다. 가족을 이끌고 조국 땅을 떠나는 것은 마음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 앞날에 희망이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부부는 미지의 내일에 대한 설렘과 걱정으로, 어린 아들은 차창 밖으로 스쳐지나가는 풍경이 신기하여 지루할 틈 없이 하얼빈에 닿았다. 하얼빈은 추운 곳이다. 봄이 오는 듯싶으면 잠깐 여름이 스쳐가고 곧장 겨울이 시작되었다. 9월이 되면 도시는 석탄 때 냄새와 연기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자연

히 외투 깃을 세워 바람을 피해 종종걸음으로 걸어야 했다. 밀양과는 전혀 다른 기후와 풍토, 낯선 문화가 있었다.

대성사가 하얼빈에 자리를 잡고 얻은 일자리는 하얼빈 지방법원 소속 대서 업무. 관청에서 익힌 행정업무로 법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1940년 12월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만주국에는 최고법원 아래로 5곳의 고등법원과 그에 딸린 25곳의 지방법원이 있었다. 그리고 하얼빈에는 고

였다. 난강지구는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였다. 새로 길을 낸 계획도시로 반듯반듯한 길이 바둑판처럼 나 있는 곳이다. 난강구에는 호텔과 병원을 비롯해 각종 관공서와 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다. 도심을 관통하는 완만한 언덕길 회하로(淮河路)가 송화강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그 길을 따라 최신 상품을 파는 백화점과 우체국, 은행과 함께 각종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얼빈에서 난강지구는 가장 변화하고 화려하며

관성사 교도 광고



#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시시불공 처처불공'

## 총지종의 역사

### 02. 정통밀교종단 '총지종' 창종 생활불교 재가종단 지향②

원정 대성사는 정통밀교종단을 구현함에 있어 생활불교를 표방했다. 바르고 참된 생활자체가 곧 불공이므로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염하고 진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을 종단의 지표로 삼았다.

역사적으로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로 변화 발전하였듯이 시대는 이제 새로운 불교를 요구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시대 변화와 대중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정립했다. 세간과 출세간, 생활과 불교, 남녀노소, 승속의 구분 없이 기도와 생활이 하나 되어 성불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불교상을 생활불교로 구체화했다.

대승불교가 출가 위주의 불교교단을 지양하고 재가신자들의 신심에 의해 꽃을 피웠듯이 대성사는 최상승의 밀교사상을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재가종단으로 구현했다.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수행하고 포교하고 실천하는 재가종단이야말로 생활불교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시대를 이끌어갈 생활불교는 승가와 재가가 함께 닦는 '승속동수(僧俗同修)'를 핵심으로 한다. 승속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깨달음에 있어 승가와 재가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승직자의 수행법과 교도의 수행법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모든 불공과 계행은 스승과 교도가 똑같이 지키도록 했다. 출가승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불공하고 수행하도록 의지를 정립했다. 총지의 수행법으로 모두 해탈성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바른 법으로 대중을 이끄는 모범이자 사표인 승직자는 가족과 속세를 떠나지 않는

재가수행자로서 누구나 거리감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삭발염의(削髮染依)를 하지 않고 편의보발(便依保髮)을 하도록 했다. 승속이 똑같이 일하고 수행해야 하므로 남다를 이유도, 거주장소를 필요도 없었다. 약식의 금가사를 채택한 것도, 그리고 창종 직후 4종의 법의를 시행하다가 곧바로 단출하고 간편한 흑색 법의로 통일한 것도 생활과 밀착한 교화를 위한 방편이었다.

생활불교 재가종단을 실현하기 위해 사원은 자연스럽게 도심에 세워졌다. 바쁜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틈틈이 언제든 쉽게 들을 수 있는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중생들의 삶의 현장 바로 곁에 사원을 건립했다. 보다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원 양식도 전통 사찰 양식이 아닌 일반적인 건물 양식을 택했다. 대중들이 내 집처럼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포근하고 아담한 현대식 건물에 사원을 조성하고 수행과 사무행정에 적합한 실리적인 구조를 갖췄다. 종단의 특색은 육향상과 원상, 그리고 사만다라를 상징하는 네 개의 기둥과 코끼리가 웅비하는 형상을 표현한 정문 계단으

## 승가와 재가가 함께 닦는 '승속동수(僧俗同修)'를 핵심으로 삼보정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단법인화

로 최소화하고 사원이 위치한 주변 조건에 맞춰 건축했다.

**총지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재가종단이라는 점이다. 일체중생과 호흡하는 가운데 중생의 아픔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에 총지종 36개 사원은 모두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며 60여 명의 스승들이 일상생활 속 생활불교를 지도하고 있다. <법보신문, 2008년 6월 17일, '종단순례④ 총지종' 중에서>**

원정 대성사는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불교의



1973년 10월 17일 대구선교부에서 재단법인 불교총지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핵심 교리를 생활불교 재가종단으로 실현했다.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요구에 응답한 생활불교의 가치에 수많은 대중들이 호응하여 종단은 일취월장 발전했다.

출가자 중심의 불교에서 재가자 중심의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출가 종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불교의 외연을

서 재단법인 불교총지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2월 12일 서울시에 종단등록신청서와 재단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종교단체를 재단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던 시절 법인등록을 추진한 데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정식으로 종

크게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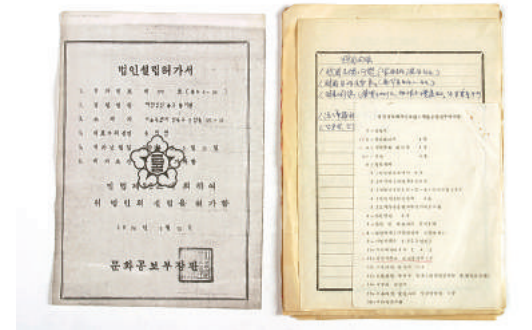
### 창종과 동시에 재단 등록

여타 종단의 분규와 사유화의 폐단을 지켜본 원정 대성사는 진각종을 이끌 때부터 종단의 재단법인화를 이끌어 투명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완성했다. 그 뜻은 고스란히 총지종으로 이어져 창종 직후 곧바로 종단 및 법인 등록으로 구체화되었다. 당시 불교단체의 등록과 재산 관리를 규제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신규 종단의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것을 예상하고 종단 등록과 재단법인 등록을 병행 추진했다.

1973년 10월 17일 대구선교부 회의실에

단 등록을 이뤄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1974년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철야정진을 할 정도로 종단등록과 재단법인화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재산 상태와 사원 규모 등 행정 편의적인 불교재산관리법의 각종 조항으로 인해 종단 신청은 반려된 채 1974년 5월 30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불교총지원 설립허가증을 수령했다. 당시 종단 등록 이전이라 '불교총지종'이라는 종단명을 사용할 수 없어 법인명을 '불교총지원'으로 신청했다.

재단법인 등록 다음해인 1975년 1월 해탈공부부터 '총지종 등록 조속성취' 서원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단 등록을



1974년 재단법인이 설립됐다. 자료사진 \_ 법인 설립허가서

추진한 끝에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후 1991년 5월 31일 재단법인 불교총지종유지재단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불교총지종' 등록이 이루어졌다. 삼보정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단법인 등록으로 총지종은 여타 종교단체에 귀감이 되는 물론 종단의 건실한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종단 운영 부분에서도 총지종은 한국 불교계의 귀감이 되는 선례를 남겼다. 총지종은 창종 직후인 1974년 유지재단을 설립했고, 1992년 법인 설립을 통해 종단의 기틀을 다졌다. 법인화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단 운영의 토대가 되어 종권 다툼이나 재산상의 분규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보신문, 2008년 6월 17일, '종단순례④ 총지종' 중에서>**

재단등기를 마친 후 원정 대성사와 종단의 주요 간부들은 6월 12일 성북선교부에서 재단 현판식을 거행했다. 정통밀교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원력 하나로 온갖 풍파를 헤치며 홀로 밀교의계법을 완성한 원정 대성사는, 상봉동 서울선교부를 필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 총지도량을 세우며 온 몸으로 뛰었던 창종의 주인공들과 함께 감격과 기쁨을 넘어 송고한 마음으로 '불교총지종' 현판을 내걸었다. '대한', '한국'이라는 수식조차 과감히 생략한 '불교총지종'.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뻗어가고자 하는 원대한 이상을 세상에 공표하는 순간이었다.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 초기밀교의 전개와 형성④

3기 새롭게 나온 초기 밀교 경전(6세기 후반~7세기 전반)

- (1) 흐리다야계(hrdaya系)
  - ① 『제불심다라니경(諸佛心陀羅尼經)』
  - ② 『지세다라니경(持世陀羅尼經)』
  - ③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 ④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 (2) 신호주계(新護呪系)
  - ⑤ 『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신주경(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神呪經)』
  - ⑥ 『대방광보살장경중문수사리근본일자다라니경(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一字陀羅尼經)』
- (3) 관음계(觀音系)
  - ⑦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
  - ⑧ 『관자재보살수심주경(觀自在菩薩隨心呪經)』
  - ⑨ 『관세음보살비밀장여의륜다라니신주경(觀世音菩薩秘密藏如意輪陀羅尼神呪經)』
  - ⑩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羼索紳變真言經)』
- (4) 불정계(佛頂系)
  - ⑪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
  - ⑫ 『오불정삼매다라니경(五佛頂三昧陀羅尼經)』
- (5) 금계계(禁戒系)
  - ⑬ 『소하호동자정문경(蘇婆呼童子請問經)』
  - ⑭ 『소실지갈라경(蘇悉地羯囉經)』
- (6) 관정계(灌頂系)

⑮ 『유히야경(維呬耶經)』  
티벳역 『성금강수관정대(聖金剛手灌頂大)판뜨라』

열거한 <신출경전>에 대해 각 경전에서 설파하는 것의 대략적인 주제는 위와 같이 (1)흐리다야계 (2)신호주계 (3)관음계 (4)불정계 (5)금계계 (6)관정계로 분류할 수 있다.

(3)관음계에 이어 (4) 불정계는 불정다라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⑩의 다라니는 제장(除障)이나 파지옥에서 보리획득

수법적(修法的)으로는 『대일경』계 태장만다라에 가까운 구조를 가진 화상과, 수법단적(修法壇的)인 백단만다라(白檀曼荼羅)가 수법의 장이 되어 오불정존(五佛頂尊)의 주문과 인계를 결승(結誦)하는 각종 성취법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수법의 구성으로 보면 이 또한 『모리만다라주경』과 같은 구성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법상의 상세한 금계가 설명되면서 밀교자 공통의 규범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속질성불의 개념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중

(6) 관정계는 확실히 입단관정(入壇灌頂)을 큰 테마로 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⑮와 ⑯인데, 거기에는 『대일경』계 태장만다라 구조와 거의 일치하는 만다라가 만들어져 인명결승(印明結誦)을 수반하는 공양법의례가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다 또 하나의 관정용 ‘관정단(灌頂壇)’인 만다라도 만들어져 관정의례가 진행된다. 기존의 관정은 제장(除障)·멸죄(滅罪)를 주로 하는 의례였으나 특히 ⑯의 관정계 경전은 『화엄경』 입법계품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법왕수직(法王受職)의례로 전개된다. 이에 이르러 초기 밀교는

또한 밀교자의 집단화에 따라 새로운 규범의식이 싹트면서 밀교자 자신을 다스려 보다 고차의 밀교를 추구했다. 그 결과 이상적인 화엄보살도의 섭취를 통해 밀교의 실천법을 대승사상으로 윤색한 것이 이 제 3기 초기 밀교의 양태였다고 할 수 있다.

최초기의 밀교가 3세기경 인도 땅에 성립하여 4세기를 넘는 기간동안에 전개되면서 7세기 전반 무렵에 확립된 셈이다. 제1기의 초반에는 비불교적인 인도 고대의 주술이나 주문 신앙에 뿌리를 둔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밀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중반에는 존격에 대한 공양법을 삼입한 염송법과 현저한 힌두교적 주문으로 채색된 밀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반에는 공양법을 조직한 염송법 위에 처음으로 만다라가 등장해 의례화를 이룬 밀교라 할 수 있다.

다음 제2기 밀교는 힌두교적 습속에 따른 주문화와 인명(印明)을 이용한 조직적인 의례체계를 갖춘 밀교라고 표현할 수 있다. 3기 밀교는 다양화하고 규범화하고 대승사상화를 이룬 밀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초기 밀교의 전 시대를 개관해 보면, 초기 밀교의 역사는 인도 고대의 주술이나 주문신앙의 대두를 거쳐 불교 측에서 괴리되어 힌두교적 색채를 띤 실천체계를 구축해 나가지만, 결국 그 실천체계에 대승불교의 사상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불교 쪽으로 돌아오는 리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초기 밀교를 바라볼 때 인도 고대의 주술이나 주문신앙에서 비롯된 힌두화된 실천체계를 가진 불교의 한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초기 밀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제3기 밀교 전개과정은 다양화→규범화→대승의 사상화 밀교 실천법을 대승사상으로 윤색함이 3기 밀교의 양태

까지 이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공사상 등 대승적 특징을 가진 다라니가 아니라 불타의 지혜를 상징하는 불정을 이미지로 한 다라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든 존격의 심수(心髓)로서 특화한 흐리다야와 유형적으로는 같다.

같은 다라니 염송법에 대해서는 경전 마지막에 만다라에 근거한 인명(印明), 즉 인계(印契)와 진언(眞言)을 이용한 염송법이 설파된다. 이 형태도 『모리만다라주경』의 염송의례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동경(同經)의 염송법은 기존의 염송법을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동경(同經)의 성립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도 있다. 그것은 ‘다라니당공양(陀羅尼幢供養)’과 ‘토사가지(土沙加持)’의 작법이다.

다음⑭의 특징은 일불정(一佛頂)보다 오불정(五佛頂)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요하다. 이 역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불정다라니의 득익(得益)이라고는 하나 기존의 힌두교적 주법과 상반되는 수법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5) 금계계는 설한 바의 염송법이나 성취법이라도 거기에 세칙을 두어 수행생활에 관한 밀교계의 규범이나 금계를 설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 으뜸이 ⑬이다. 동경의 특징으로 보이는 초기 밀교자들은 실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강한 소승적 규범의식을 갖고 힌두교 주법에 편향돼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초기 밀교 실천법은 시기가 내려오면서 염송법과 각종 성취법을 비롯하여 화상과 만다라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또 수행자들도 밀교 융성과 함께 증원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엄격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단반에 중기 밀교의 『대일경』에 한없이 가깝게 다가간다.

이상과 같이 제3기 신출의 여러 경전을 개관해 왔는데, 이 시대의 밀교의 전개과정을 파악한다면, 다양화→규범화→대승의 사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제1기 시대부터 전개되어 온 밀교계의 다라니와 주문을 통한 수호를 중심으로 하는 소박한 밀교보다, 2기 시대의 전개를 거쳐 3기에 들어서면 화상, 만다라, 염송법, 성취법과 같은 수법상의 조직 구성이 목적별로 단숨에 다양해졌다.

그 배경은 여러 신출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모리만다라주경』의 인명결승(印明結誦)이라는 혁신적인 밀교 형태의 등장이다. 이 인명결승법을 기반으로 존격의 다양화나 부족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염송법과 성취법이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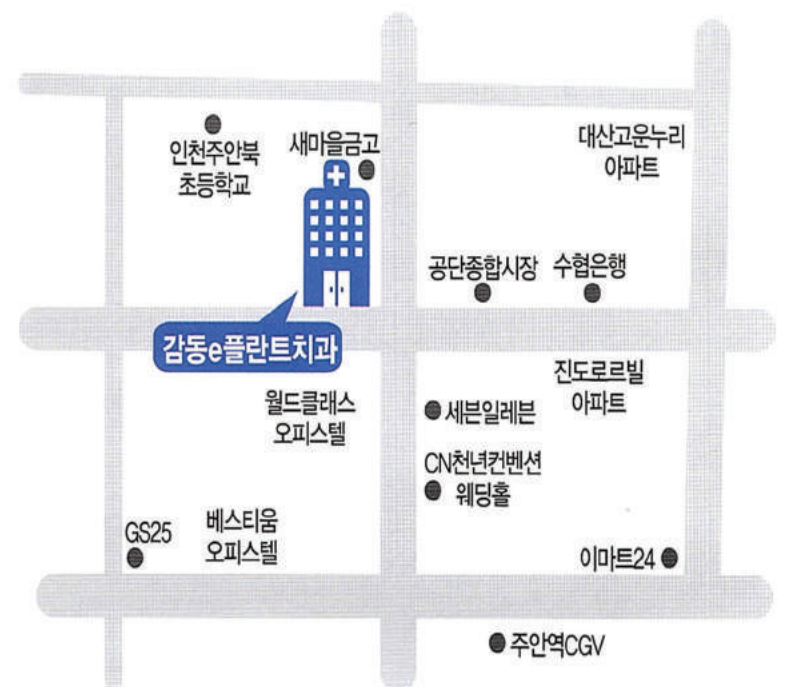
###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감동e플란트치과

##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들니
- 사랑니발치

###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 근대 티벳불교의 스승 파봉카 린뵈체 (2)

올해 여름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일주일간 머물렀던 세초링사원은 달라이라마 성하의 짜그라상와라판프라 관정식과 맞물려 인도 전역과 국외에서 몰려든 많은 스님들에게 거처를 제공하였다. 주지스님은 외국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스님 몇 분을 소개해 주었는데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라의 불자들이 티벳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스님들은 강의를 시작한 후 대부분 2, 3년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유는 자신의 공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공부자체에 목적을 두면 읽어야 할 삼장과 주석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의제대로 수습해야 할 많은 밀교성취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의 성취와 법문이 온전한 스승들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근대불교 파봉카 린뵈체의 수행편력을 통해서도 새로이 드러난 별 같은 스승들의 명호와 자취를 볼 수 있다. 지난 글에 이름이 보인 닥띠 돌제창이 그런 분이다. 돌제창이란 말은 지금강이란 뜻이다. 닥띠 돌제창은 티벳사회에서 생불로 여겨져 존

경받는다. 파봉카 린뵈체는 「밀라레빠 십만송」을 비롯해 종카빠와 두 제자들의 주석들을 연구하고, 금강수관정도 받았으며 이 많은 밀교의 비밀한 전승을 수여 받았다. 이외 파봉카 린뵈체가 수학한 많은 스승들의 이름을 전하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24때 닥띠 돌제창께서 입적하자 많은 제자들이 가르침과 관정을 청하려 몰려들었다. 그러나 파봉카 린뵈체는 여전히 규포사원 전주지인 틸레 겐첸, 대뽕고망의 강굴와로부터 도차제와 밀교관정을 공부하였다. 파봉카 린뵈체는 겐첸빠 외에도 사까빠의 전승에도 관심을 가졌고, 닝마의 전승도 익혔다. 파봉카 린뵈체의 전기는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공부는 도차제와 함께 ‘차그라상와라판프라’의 전승이었다.

한때 파봉카 린뵈체는 탁부 빠마와즈라와 함께 넨데계곡의 락뎀 동굴에서 밀교수행의 안거를 시작하였다. 파봉카 린뵈체는 수많은 밀교본존들의 수용신을 진경했다. 차그라상와라판프라와 관련해 1908년 당송 신보리산에서 수행할 때 인도로부터 가져온 차그라상와라판프라



Pabongkha

의 불상에서 본존의 신변이 나누는 것을 보았다. 밀교수행의 영역은 현실보다 수용신의 영역이 더 넓을 지 모른다. 『진실집경』의 설차가 색구경천이고 일체의성취보살은 여기서 오상성신관을 익혔다. 그 연원은 오랜 것으로 『반주삼매경』은 선정의 경계에서 정토불을 진경하는 수행을 설한다. 4세기 무착은 삼매의 경지에서 도솔전에 올라가 미륵보살로부터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미륵 5부서의 강의를 들었다. 이처럼 정도와 유식, 밀교의 세계는 넓지만 불교편력의 포용성 부재는 누구나 선정과 유가, 꿈의 경계를 거부하는 편협한 구석으로 내몰리기 쉽게 만든다.

파봉카 린뵈체가 근본사신인 닥뽀라마 립삼잡뽕 문둥가초(1845-1919)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30세때로 당시의 교제는 제4대 뽀첸라마의 도차제에 대한 주석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사제의 인연으로 인해 닥뽀라마는 파봉카 린뵈체에게 자신의 전승을 남김없이 전하여 명실상부한 계승자가 되게 하였다. 이후 파봉카 린뵈체는 근본사신의 사원인 닥뽀사원을 수없이 방문하였

다. 그러나 파봉카 린뵈체에게는 이미 수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어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겐첸빠의 3대 사원인 세라, 간덴, 대뽕사원의 무수한 제자들이 몰려들었으며 티벳에서 설법이 이루어진 곳마다 많은 청중들이 청문하였다. 파봉카 린뵈체는 라사에 있을 때 주로 파시최링수도원에 있었으며 근처 출상수도원도 자주 왕래하였다. 출상 수도원에서 제5대 뽀첸라마의 도차제에 대한 저술과 제5대 달라이라마의 『문수구전』에 대해 명강의를 하였고 훗날 제3대 티장린뵈체에 의해 『손안의 해탈』이라는 도차제의 저서로 출판되었다.

파봉카 린뵈체의 위대한 수행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세간사의 바람은 피하지 못하였는데, 시가체에 근거한 제9대 뽀첸라마는 지역의 자치권을 확장하려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티벳중앙정부와 분쟁이 야기되었다. 또한 생전에 종파간의 분쟁이나, 티벳의 수호존을 두고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파봉카 린뵈체의 가장 유명한 제자는 지난 글에 소개한 제4대 립린뵈체와 티장린뵈체였다. 제13대 달라이라마 성하의 임적으로 인해 두 스승은 제14대 달라이라마 성하의 교수가 되었는데, 두 스승의 가르침과 인품은 제14대 달라이라마에게 큰 영향을 주어 오늘날 티벳불교가 세계의 불교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때문에 파봉카 린뵈체의 수행과 성취는 인도불교가 세계의 불교로 성장하게 한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다. 파봉카 린뵈체는 1941년 63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파봉카 린뵈체의 사리는 티벳본토의 세라메 사원의 주법당에 모셨지만 중국의 문화혁명때 파괴되었다.

원	정	대	성	사			마	구	간
호		구		자	리	이	타		다
대				후			하		라
사	리	분	별		항	아	리		
	사			무		집		부	
마	카	다	미	아			자	전	거
피		도	지	천	명		자		
아	부		수	경		심	청	전	
	동		미		심	보			전
	산	방	산			감	언	이	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 생우우환의 정신

‘생우우환 사우안락(生于憂患 死于安樂)’은 ‘어려운 상황은 사람을 분발하게 만들지만 안락한 환경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으로 맹자의 말씀입니다.

맹자가 BC 371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니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2,394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했던 가르침의 언어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성인(聖人)의 예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맹자의 가르침은 인간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등 동물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산업자의 경우, 동부에서 잡은 활어(活魚)를 서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수온을 잘 맞추어도 대부분의 활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산업자는 여러 가지 고민과 궁리 끝에 수조에 물고기의 천적인 메기를 같이 넣어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활어들은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메기가 물고기들을 긴장시켜 스스로 살기 위해 분발하도록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활어들의 생명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천적이 있는 동물들은 스스로 각성함으로써 점점 강해지고 웬만한 공격은 스스로 이겨내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우우환’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열대지방이라 숲속에 들어가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기에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

아인들은 먹을 것을 저장해 두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과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자연히 부지런한 성격이 일상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지런한 생활습성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생우우환’의 정신자세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사우안락(死于安樂)’의 분위기로 우리 사회가 변모해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힘든 일하기를 싫어하고, 노력은 달하면서 보수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근로의욕이 점점 저하되어서 ‘사우안락(死于安樂)’ 현상으로 만연해 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의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잘못 놓인 그릇에는 소나기가 내려도 물이 담길 수 없고,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가랑비가 내려도 물이 고입니다. 귀(耳)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말고, 눈(目)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 않는 삶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得)이 없는 것은 흘러버리는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7월 21일 ~ 8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7/25	10,000	단음사	신발심	8/16	20,000	사원명무기명	박필남	8/12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8/1	10,000	
	보명심	8/16	10,000		지홍	8/20	10,000		김용기	7/25	20,000	자석사	도우	8/8	10,000	
	공덕성	7/25	20,000	단향사	이수형	8/20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7/26	50,000		지현	8/8	10,000	
	상지화	7/25	10,000		이상채	8/20	10,000		오선혜	8/1	10,000	정각사	김점남	7/28	20,000	
	수증원	7/25	10,000	덕화사	이진승	7/31	10,000	수인사	이하영	7/25	10,000		노점호	7/29	10,000	
	밀공정	7/25	10,000		법상인	8/16	20,000		수인회일	8/16	50,000		탁상달	8/5	10,000	
	총지화	7/25	10,000	동해사	법선	7/25	10,000		법상	8/16	20,000	지인사	김미혜	8/7	10,000	
	법수원	7/25	10,000		김진화	8/1	10,000	시범사	이순영	8/16	20,000		유승태	8/7	10,000	
	선도원	7/25	10,000	만보사	송인근	8/18	10,000		해광	8/16	10,000	초록어린이집	강해란	7/25	10,000	
	법지원	7/25	10,000		무명씨	7/21	10,000	실보사	무명씨	7/26	20,000		이지희	8/2	100,000	
	일성혜	7/25	10,000	밀인사	강명순	8/9	10,000		황성녀	7/28	10,000		김정환	8/2	10,000	
	사홍화	7/25	10,000	법천사	정정희	8/1	5,000	실지사	유승우	8/8	10,000	총지사	백귀임	8/10	10,000	
	안주화	7/25	10,000	법향사	반야심	8/1	10,000		이도현	8/8	10,000		최영아	8/10	10,000	
	진일심	7/25	10,000		박미경	7/25	10,000		이루나	8/8	10,000		신성희	8/11	10,000	
	시각화	7/25	10,000	벗고을어린이집	인선	8/16	10,000		이서현	8/8	10,000	통리원	신현태	8/11	10,000	
	최상관	7/25	10,000	벽룡사	정계월	8/16	10,000		진금선	7/25	50,000		김평석	8/8	10,000	
	연등원	7/25	10,000		승원	7/25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정동숙	7/27	50,000		최유정	7/31	50,000	
	자선화	7/25	10,000	벗고을어린이집	묘원화	7/25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7/27	50,000	화음사	무명씨	8/1	10,000
	승효제	7/25	10,000	단음사	이민선	8/1	50,000	운천사	반야화	7/22	30,000		박옥자	8/9	10,000	
논산개태사	양산스님	8/8	100,000		하명순	7/25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7/25	50,000		김성찬	8/9	10,000	
	장정숙	8/16	10,000	사원명무기명	남명애	8/1	30,000		연명구	7/28	10,000		강승민	8/10	5,000	
	하현정	8/16	10,000		최영미	8/10	50,000		김경희	7/29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병은	8/10	50,000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 <11>

# 마구니 전성시대에 사는 법

부처님 말씀인 경전에는 마구니에 관한 것도 많다. 부처님이 깊은 명상을 해서 깨달음 직전에 이르자, 마구니왕 파순은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는 위대한 부처님의 출현을 막고자 온갖 장난을 벌인다. 마구니는 선과 악의 양면에서 악을 상징하며, 지혜와 자비의 완성자 부처님을 반대하여 온갖 사악한 행을 저지르나 결국 부처님의 지혜 앞에 항복한다.



샷된 행을 한다면 국정 문란이 일어나 사회적인 혼란은 견잡을 수 없을 것이다.

### 파사현정으로 지혜 밝혀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는 정(正)과 사(邪)가 혼탁하니 종교의 가면을 쓴 마구니들이 횡행한다.

이런 시대일수록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불자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정견을 세우고 늘 깨어있어야 한다. 중도 정견이란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중도 정견을 세운 이라면 정과 사는 구분할 줄 안다. 이 기심으로 자기 욕망에 집착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가 마구니이다. 중도 정견을 세운 이는 부처님을 가장한 마구니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와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불교의 정견을 세운 이라면 이런 마구니 장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끝없이 남을 돕는 보살행을 하는 이들이다. 반대로 나와 내 것에 집착하고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면 바로 마구니행이다. 달콤한 말이나 남을 헐뜯고 남 탓을 하며 나와 남을 가르고 이간질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들이 마구니들이다.

불자라면 이런 마구니 언행을 바로 보아 파사현정(破邪顯正)하며 늘 중도 정견으로 지혜를 밝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보살행을 하여야 한다. 혼탁한 시대일수록 이런 중도 정견의 대승 보살행이 참으로 고귀하겠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마구니 행은 끝이 없었다. 부처님의 사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어 높은 경지에 이른 제바달다가 그렇다. 부처님이 연로하시자 승단을 자신에게 물려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자기를 따르는 500여 비구들을 규합하여 부처님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경전은 기록한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출가 제자 제바달다는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니가 된 것이다.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다. 어떤 종교인은 젊은 여성들을 구슬려 성적 욕망을 채우다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기도 한다.

최근 마구니 행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로, 이른바 '정법'을 내세우며 유튜브를 통해 좋은 말만 골라하는 'ㅇㅇ스승'이라는 이가 있다. 이는 마음공부를 내세우며 근사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경전은 기록한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출가 제자 제바달다는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니가 된 것이다.

### 우리 사회의 마구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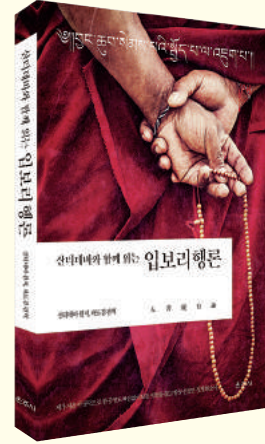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불교와 교단에도 마구니의 장애가 적지 않은데 온갖 중생들이 모여 사는 우리 사회에도 마구니의 장난이 끝이 없다. 멀쩡한 사람도 탐욕과 자기 이기주의에 물들어 마구니로 돌변한다. 국민의 이익과 행복보다는 이기적인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일부 정치인, 공직자들이 그렇다.

근래에는 종교를 앞세운 마구니들도 극성이다.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기를 흔들면서 광화문에 모여 'ㅇㅇ대통령 간첩, 사탄' 운운하며 도저히 종교인의

자유민주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건만 신도조직을 지닌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을 조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여 표를 모으고 정치자금을 몰래 지원하는



## 산티데바와 함께 읽는 입보리행론



저자 산티데바  
편역 하도겸  
판형 144\*207mm 무선 240쪽  
도서출판 운주사  
가격 15,800원

모든 사람들은 아픔을 원하지 않는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불교에서는 삶에서 고통을 마주했을 때 공부와 수행으로 이를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에 티베트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입보리행론>을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로 삼아 정진을 이어왔다.

<산티데바와 함께 읽는 입보리행론>은 8세기경 인도의 대성취자 산티데바가 지은 <입보리행론>을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정수, 핵심사상인 '보리심'에 관해 산문 형태로 풀어 편역한 책이다. 원문은 노래 형식의 계송으로 되어있는 반면, 편역본은 산문으로 구성되어 독자로 하여금 대승불교의 가르침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일체중생의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서원하는 보리심이 대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본원에서부터 보리심의 이익, 수행방법 등을 교학적인 부분과 수행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하고 있다. 단순한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육바라밀의 실천행으로까지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저자 산티데바는 밀교 금강승의 무상요가 탄트라 수행으로 신통력을 얻었다고 전한다. <산티데바와 함께 읽는 입보리행론>을 일상 속 수행으로 삼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편안한 행복을 경험해보길 권해본다.

### 불교서적 월간베스트(8/1~31)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반야심경 정해	알아차림	관정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청우당	김원수
3	아사나 브라나야 마무드라 반다	한국요기출판사	사라스와띠
4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알아차림	관정
5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운주사	홍창성
6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오타쿠	김성철
7	스님의 그림자	운주사	효록
8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율김
9	딱돌 해설서	금빛소리	중암선해 역

### Premium Well-being Food

## 수인사 추석 맞이 선물 세트 특별 판매!

맛간장 식초세트  
22,000  
**20,000원**



맛간장 식초세트+맛간장  
29,000  
**27,000원**



\* 수인사는 매주 무료급식과 매월 4주차 일요일에는 도시락 나누기를 해오고있으며 11월 김장김치 나누기, 할매할배 요잔치와 동지팥죽나누기 등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금 20%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합니다.



### 정각사 자비회, 코로나 방역 지원 부산 동래구청에 300만원 상당 물품 회사



부산 정각사 자비회(회장: 백일숙)가 지난달 11일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동래구 보건소 대응요원들을 위한 생수, 음료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일숙 회장을 비롯해 정각사 이현희 시무와 이영순 총무, 김부강 대리가 동참했다.

백일숙 회장은 “코로나19로 연일 노고가 많은 보건소 대응요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며 뜻을 전했다.

장준용 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의료원, 병원 등에서 많은 분

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구보건소 대응요원들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정각사 자비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물품은 대응요원들에게 잘 전달해 코로나19 해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비회는 지난 2020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동래구청에 회사한 바 있으며, 매년 모자 가정 돌봄센터, 연산동 복지관 등에 이웃 나눔과 종립 동해중학교 장학금 지원 등 부처님의 동체대비가르침으로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 도시락 자비나눔 이어가는 수인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승헌 동장 등 참여



한달에 한번 무료 도시락 나눔으로 부처님의 자리아타행의 전법을 펼치고 있는 포항 수인사(주교:법상 정사)가 8월에도 봉사 모임인 수인화와 함께 자비나눔을 이어갔다. 지난달 21일 자성일에 펼쳐진 나눔에는 도시락 42개를 마련하여 이웃에 전달했으며, 특히 수인사 관할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승헌 동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동참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한편 수인사는 추석을 맞이해 수제 맛간장과 과일식초를 판매한다. 수익금의 20%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무료급식, 반찬배달, 겨울김장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인교구 지회장 김은숙  
부산경남교구 지회장 류길자  
전라충청교구 지회장 민순분  
대구경북교구 지회장 윤복자

**축하합니다** 종립 동해중학교 3학년 1반 남운우 군  
한국과학영재학교 합격



### 석관실버, RCY 봉사단과 업무 협약 노년·청년 세대 공존을 위한 교류 활성화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RCY봉사단'과 「두뇌건강증진센터」 공동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RCY봉사단과 함께하는 두뇌건강클래스를 운영 할 예정이다.

석관실버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RCY봉사단' 정혜림

회장과 김도현 부회장이 참석하여 두뇌건강증진센터 공동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년·청년 세대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세대공존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뇌건강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에 협력하고, 세대 간 호흡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㉑		L		㉒		㉓
				③		
④	㉔			⑤	㉕	
			⑥			㉖
⑥㉗	㉘			⑦		
			⑧	㉙		
⑨	㉚		⑩㉛		⑪	
				⑫		*
	⑬				⑭	

**가로 열쇠**

- 한국정통밀교를 다시 일으키고, 불교총지종 창종을 하신 분
- 말을 기르는 곳
-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뜻의 불교용어
- 일의 이치를 구분하여 생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 고추장, 간장, 된장, 장독대
- 견과류의 황제, 쿠키에 많이 들어가 있으며 후자가 원산지
- 발을 이용해 페달을 돌림으로써 전진하는 탈 것
-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남의 비위를 맞추며 알량거림
- 물안경
- 맹인인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효녀의 이야기
- 마음을 쓰는 속 바탕(마음씨)
- 제주 서귀포시 사계리 해안에 있는 산
-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 남의 비위를 맞춰 피하는 말

**세로 열쇠**

- 일심과 화평,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신라의 승려
- 사과의 원조, 00광역시
- 석가의 설법으로 모든 악마가 불교에 귀의하였다는 말,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 사이를 오가며 스파이로 활동, 매혹적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
-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지방의 옛 이름, 동서 문화를 융합시킨 독특한 형태의 불교미술 발달의 원천
- 바퀴가 돌 달린 운반용 작은 수레
- 실체로서의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 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
- 아버지와 아들이 많이 닮았음을 뜻하는 사자성어
- 마약과 도박, 금음 따위에 관련된 거대한 범죄 조직
- 찾ыл 따기에서 달여 마시기 등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덕을 쌓는 행위
- 조선시대 서당 등에서 어린이들의 학습교재로 사용돼 온 한문교양서
- 토지와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
-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산
- \* 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

정답은 9면에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예』에 의한 진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b>서울경인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충청전라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복로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린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림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윤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혜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기후환경위기 극복 실천 선언문

‘佛弟子답게 마음청정, 지구청정을 위한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 21세기, 인간은 법화경의 ‘화택’에서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창궐 등 각종 생태 위기가 지구생명공동체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1.1℃ 상승은 세계 곳곳에 산불, 폭우, 홍수, 가뭄과 태풍 등의 극단적 기후재난을 야기하여 기후난민을 양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의 발생은 세계인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기후과업, 멸종저항, 나아가 ‘범지구적 체제전복’의 화재경보기를 울리며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자들이 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위해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 불제자들이 참회하며 초발심으로 회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이니, ‘모든 존재가 서로 상호의존하므로 존중하며 공생할 것을 설법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바세계는 인류사회가 수 백 년 동안 물질적 풍요와 탐심으로 인드라網인 지구를 무제한으로 지배하고 수탈한 共業의 後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사부대중이 보현보살의 행원력으로 재난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고,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불자답게 여법하게 살지 못한 생활 癖慣을 참회하고 초발심으로 회향하는 중·장기 불교실천행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첫째,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상(相)이 상 아님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라고 가르침을 설하셨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 위기를 묵도하면서 생태 위기를 남의 일처럼 방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무명의 삶을 마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존중, 자리아타, 보살행을 실천하여 서로 상생하며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나아가 못 생명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의 개인적 실천부터 시작하여, 동네로, 나아가 지역사회, 이웃 종교와 협력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쓰레기 제로를 위한 실천운동을 펼치겠습니다.

## 둘째, 少欲知足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나(我)’나 ‘내 것(我所)’이라는 관념이 고통의 근본이고, 五蘊皆空임을 설법하셨지만 우리는 八正道로 나아가지 못하고 八邪行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아차리고, 동체대비심으로 살겠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깨달아, 자발적 소박한 삶을 실천하며, 윤리적 소비로 소육지족을 실행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나누며 이웃과 공유와 협력을 생활화하겠습니다.

## 셋째, 생명살림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발우공양은 불살생의 계율에 따라, 채식으로 마련된 음식을 섭생하는 것에서 나아가 천지자연의 공덕과 은혜에 감사하며 수행정진을 다짐하는 의식을 통한 불법 체현의 방편입니다. 더구나 채식이 식생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70%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실천방침의 하나이므로 동참 발원합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식량자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을 위해서 농업을 지키고 자립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개체의 방생보다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참다운 방생임을 알아 나무심기, 철새 먹이주기 등 생태방생을 하겠습니다.

## 넷째, 자업자득, 결자해지 자세로 미래세대에게 청정지구를 물려주겠습니다.

2018년 10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아래로 억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감축해야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화력발전을 하루 빨리 폐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업 RE100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참여기업은 고작 20개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이 스스로 사찰, 불교시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 설치, 녹색사찰운동 등을 실천함과 더불어 기업 RE100을 촉구하면서 지역의 ‘RE100 시민클럽’ 등에도 참여하여 가정, 지역의 에너지 전환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진전된 법·제도를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佛子들은 火宅에서 자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2030 온실가스감축과 2050탄소넷제로(중립)목표 완수를 위한 세계적 실천에 앞장서서 동참하는 것이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길이라 밝힙니다. 또한 생태 위기 해결은 우리가 지배와 추출 중심으로 조직된 약탈경제에서 생명세계와의 상호의존관계에 뿌리 내린 경제로 전환할 때만 가능하므로, 세계 인류사회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며 공동의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보살행을 행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지구 생명공동체 시대를 열어가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회적 실천과 공동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다.